

# 산지 가격·무료 시식까지... 고흥 굴 축제 개최 임박

## 고흥군, 취도·금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한 제철 고흥 굴 미식 축제의 첫 출발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1월 3일 오전 11시부터 포두면 해장만 오토캠핑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제1회 해장만 고흥 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운영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축제는 1월 3일 하루 동안 열리며, 산지 직판 가격으로 제공되는 제철 고흥 굴을 비롯해 셰프 시연과 선착순 100명 무료 시식 행사 등을 마련해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미식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축제의 핵심 공간인 스페셜존 <굴막포차>에서는 제철 굴 본연의 풍미를 살린 굴 찜을 현장에서 조리해 제공하며, 굴구이는 야외 바비큐 존에서 방문객이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식존 <바다마루>에서는 전통 향토 음식인 피골과 진석화젓을 비롯해 굴 타코, 유자 굴 카르파초

등 고흥 굴을 10가지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미식 메뉴를 선보인다.

오전 11시에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요리연구가 박성숙의 굴 파스타와 청년 셰프 임바울의 오이스터 락펠러 시연회가 열리며,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이 진행된다. 새해 첫 주말에 산지에서 즐기는 제철 굴 미식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 경쟁력 또한 이번 축제의 주요 특징이다. 고흥군굴생산자협회는 축제 당일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산지 직판 방식으로 최상급 원물 굴을 공급한다. 산지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은 굴을 시중 유통가 대비 부담을 낮춘 가격으로 제공하며, 명절을 앞둔 방문객들을 위해 현장 택배 주문

도 가능하다.

오후부터는 해장만의 아름다운 낙조를 배경으로 '바다 노을 콘서트'가 열린다. 가수 차빛나(어쿠스틱), 더원스(컨트리&록), 정수철(R&B·소울) 등 실력과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겨울 바다의 정취를 음악으로 전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돌봄형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체험존 <바다 놀이터>에서는 고흥 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체험과 소원 굴걸이, 6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50분 과정의 돌봄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행사장 곳곳을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스탬프 밧고 미션'도 진행된다. 안내지에 표기된 미션을 수행해 밧고 3줄을 완성하면 고흥 굴 마스크트 '꾸울이' 굿즈와 농수산물 선물 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고흥/박도일 기자



## 함평군,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선정 마산리 고분군 중심 130억 규모 역사문화권 조성

전남 함평군이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 도시를 만든다.

함평군은 지난 30일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선정된 전국 6개 지자체 중 전남 도에서는 함평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함평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3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함평의 핵심 유적인 마산리 고분군과 월산리 신흥동 유물산포지를 중심으로 고대 마한 역사 문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마산리 고분군은 영산강 유역에서도 드물게 전방후원형과 원형 고분이 함께 분포하는 대형 고분군으로, 마한 정치집단의 위계와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신흥동 유물산포지는 주거지·생활유구(遺構)·소형 고분이 함께 확인되는 생활사 복합 유적으로, 초기 철기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취락과 묘역 변천을 함께 살필 수 있어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함평군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유적 정비에 보존도를 높이는 한편, 유적 주변의 원지형과 경관을 회복하고 탐방 동선을 정비하는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산리 고분군 일대를 '머무르고 체험하는 역사 문화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적 원형 인지 공간환경 조성 ▲비지정 유산 역사 문화 산책 공원 조성 ▲학동로 역사 문화 분위기 조성 ▲고분군 조망 공간 조성 ▲방문자 공간 조성 ▲유적 브랜드화 및 통합디자인 개발 ▲역사 문화 체험 마을 조성 ▲관광거점 간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특히, 함평군은 정비 이후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기반의 관리 체계와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비 과정에서 주민 역사문화리더 양성과 주민협의체 운영을 병행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등 관련 부서 사업과도 연계해 정비 이후에도 주민 주도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강진군이 2025학년도 관내 고3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강진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강진고, 생명과학고, 병영상고, 성전고, 덕수학교 등 5개 학교가 해당된다. 주소지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 강진군 "고3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진로·진학 준비금 첫 시행, 1인당 50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원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진학 준비금은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정책발행 상품권 지급을 통해 강진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비치

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청 학생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이 신청 학생 명의가 아닌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신청 후, 학교 재학 및 주소 확인을 거쳐 1월말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강진군은 신청 편의를 위해 각 고등학교를 방문, 사전 설

명회를 개최해 진학지원금 신청 안내와 사전 현장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진학 준비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3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있는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진로·진학준비금 지급 사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에 군비 27억원, 장학재단 8억원 등 총 35억원의 예산으로 중학생 해외역사문화탐방, 으뜸세대 육성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 나주시, 외국인 대상 생활폐기물 배출 다국어 안내 강화 8개 언어 홍보물 제작, 배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외국인 거주자와 근로자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나주시가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해 무단투기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언어장벽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정 배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접이식 리플릿 형태의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기준과 함께 부정적 배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안내를 담아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중국어, 태국어, 영어를 포함해 한국어까지 총 8개 언어로 제작해 나주시에 거주하거

나 근무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QR코드를 삽입해 나주시 대표 누리집과 바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홍보물을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과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현장 홍보를 병행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했다"며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 보성군,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 및 제4기 청년협의체 발대식 보성 청년 성과 한자리에! 청년 주도 지역 활동 확대

보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 및 제4기 청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보성 군의회 김경열 의장과 군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청년공동체 및 청년동아리 회원, 제4기 청년협의체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 ▲2부 우수사례 시상 및 제4기 청년협의체 발대식, ▲3부 청년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청년공동체 3개소와 청년동아리 8개소 팀이 올해 추진한 활동을 발표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공예·농업 활동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며, 지역에

정착해 활동하는 청년들의 구체적인 실천 모델이 제시됐다.

우수 사례로는 맨발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참여 문화를 확산한 '새길청년 이음'이 청년공동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청년동아리에는 ▲손바느질을 활용한 한복 인형 제작으로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한 '한 땀 한 땀', ▲다양한 공예 활동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확대한 '옴뽀 청년 공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디지털 개발에 나선 '청년 농업인이 만드는 보성 디지털' 3개 팀이 선정됐다.

특히, '청년 농업인이 만드는 보성 디지털'은 보성산 농산물을 활용한 디지털 개발해 청년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연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성/김윤기 기자

## 무안군, 군민 안전 위해 관내 시가지 제설 작업 '구슬땀' 대설주의보 발효에 비상 1단계 가동... 상황 관리, 제설 총력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일 밤 8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주민 불편 해소와 군민 안전을 위해 제설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13개 협업부서와 읍면 상황근무를 실시했고, 관내 도로 13개 노선 180km에 대해 제설차량 13대를 투입하여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2일 이른 아침부터 김산 군수, 김

병중 부군수를 비롯한 무안군 공직자들은 무안군청부터 무안읍 중앙로 등 주요 시가지와 마을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며 제설 작업에 동참했다.

김산 군수는 "대설로 인한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